올해로 20회째를 맞는 2011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SK케미칼 연구소」, 「레티스 하우스」설계자와 「성남 판교 산운마을 7단지」시공자가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에는 「인천 어린이과학관」, 「한화갤러리아 센터시티점」, 「쌍용건설 평창동 타운하우스 오보에힐스」설계자와 「삼성 래미안 이스트팰리스」시공자가 선정됐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건축주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수여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에 대한 문화적 토대가 부족한 1992년에 제정돼 「건축은 문화다」임을 표방하며 이 땅에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워왔다.

올해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해 가는 건축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했다.
특히 사회공공부문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마을 전체의 산세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전시실을 지하에 배치하면서도 지형을 활용하여 외부의 자연을 실내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유입한 것이 돋보이며, 자칫 거대해질 수 있는 전시관을 적합한 규모로 분절시켜 전통 마을의 스케일을 지키려 한 것이 높이 평가 됐다. 민간부문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SK케미칼 연구소」는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심위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수작으로 평가 되었다. 또 건축주의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환경건축 도입의 열정이 과감한 투자와 함께 높은 완성도에 다가갈 수 있게 한 건축물로 평가 받았다.

이 밖에도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정보의 수집을 통해, 정보로부터의 소외와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건축적으로 제안한 문제의식이 예리하게 우리 사회의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완성도 높은 건축작업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함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은 「아날로그 칩」의 김태선, 우원석, 허은영 씨가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1인에 한해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는 박길룡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정해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공로상은 황일인 (주)일건 건축사사무소 대표와 박경립 강원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91점, 계획건축물부문 575점 등 총 666점이 응모됐으며, 시상식은 10월 27일(목)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고, 수상작은 1층 Hall A에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시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부터 건축문화 창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간중심의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및 또 건축계에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상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정배경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기본취지로 지난 92년 건설부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제정함.
- 제3회('94) 행사부터는 지난 1971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단독 개최해오던 「한국건축전」과 통합을 이뤄 민 · 관 · 언론이 공동 시행주체가 되는 건축 분야의 대표적 전시 · 시상행사로 발전.

목 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96년 제5회 때부터 본상이상 수상자중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명실 공히 국내 건축상 제도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발돋움함.

□ 역대 주요 수상작(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본 상	우수상
제1회 (1992년)	한샘 시화공장	삼성종합연수원 창조관 호텔 현대 분당시범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연남동주택	–
제2회 (1993년)	헌법재판소	국립부여박물관 이화여대 공관 학동수졸당 부산서대신동주택	–
제3회 (1994년)	민정학원	아주대병원 예닮교회 SBS 등촌동 스튜디오 포이탑빌라	엑스포아파트 전쟁기념관
제4회 (1995년)	포스코센터	경희분당차병원 쌍용투자증권 사옥 홍천휴게소 팜파스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수원선경도서관 토월대동아파트 삼성동 현대빌라
제5회 (1996년)	대법원 청사	분당 주공아파트 태평양파크빌라트 신내지구 9단지 아파트 수원야외음악당 진로쿠어스 공장 용문청소년수련원	–
제6회 (1997년)	LG화학 기술연구소	삼청동주택, 분당 집합주거 웨스틴조선호텔 빌라 코오롱타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미래연수원	–
제7회 (1998년)	울산 현대예술관	고려포리머 사옥 김옥길기념관, 오크밸리 리조트 씨네플러스, 이태원 다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
제8회 (1999년)	(해당작 없음)	양산 컨트리클럽하우스 두산타워, 구산타워 국민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민대학교 국제교육관 부산 당감지구 주공아파트 임거당	–
제9회 (2000년)	교원그룹연수원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웰콤시티, 동아미디어센터 미제루, 영동군보건소 서미갤러리	–
제10회 (2001년)	의재미술관	가나안 교회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용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
제11회 (200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원시연화장 코리아디자인센터 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 선수 · 기자촌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기흥상갈 금화마을, 원당성당 중부대학교 건원관	–
제12회 (2003년)	시몬느 사옥	분당 C-11-4-12 광명철산지구 주공아파트 춘천두미르 군인아파트 동부금융센터 매스메스에이지 포스코역사관	–
제13회 (2004년)	광주광역 시청사, 아이파크 삼성동	KT 여의도 빌딩 한성대학교 도서관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용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연하당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
제14회 (2005년)	달성군청사 타워팰리스 III	대치 동부센트레빌, 배재대학교 예술관	A House With Three Courts 수입777 보헌빌딩 옥계 휴게소
제15회 (2006년)	청계천 문화관 해송원 솔빛머금은 남쪽마을... 오름-목방리 주택	전라북도 도청 및 의회청사, (주)하이마트사옥, 노은 리슈빌 II, 동신대학교 기숙사	–

제16회 (2007년)	덕평자연휴게소, 파주웅진 씽크빅 사옥, The # 스타시티, 배재대학교 국제언어생활관	대룡중학교, 논현동 의화빌딩, 용산 파크자이, 양익재	완도군 수협활어 종합유통센터 외 12작품
제17회 (2008년)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웨스트민스터홀, 아임삭 오창공장,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동백 아펠바움	백남준 아트센터 워커힐호텔 '아카디아', 관악산 휴먼시아, 루트 하우스	단원어린이 도서관 외 13개 작품
제18회 (2009년)	서울남 산국악당, 부띠크 모나코, 반포 577, 은평 뉴타운 현대 I PARK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복합단지, 금호아시아나 본관, 집운헌, 의정부 녹양 휴먼시아	제주특별자치 도립미술관 BTL 외 10개 작품
제19회 (2010년)	도시축전기념관 (트라이-볼), 탄허대종사 기념박물관, 성남판교 대림 휴먼시아(A27-1), 동탄 솔리움 타운하우스	을지로 119안전센터, 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 파주 교하 한빛마을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 그린투모로우	성북 더 게이트 힐즈 외 14개 작품

준공건축물부문

□ 행사일정

- ▶ 작품공모공고 : 2011. 3. 2 ~ 6. 6
-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6. 7 (kaa.kira.or.kr)
- ▶ 접수 : 6. 8 ~ 6. 9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 심사 :
  - 1차 사진첩심사 : 6. 17
  - 준공건축물부문 2차 현장심사 – 6. 29~7. 1(지방), 7. 12~7. 15(수도권)
  - 준공건축물부문 최종심사 : 7. 15
- ▶ 시상식 : 10. 27 10 : 00 /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
- ▶ 수상작 전시 : 10. 27~30 / 장소 : 코엑스 1층 Hall A

□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 응모작품 : 2009년 5월 1일부터 2011년 5월 2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 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단, 리모델링 건축물은 증축 · 개축 · 대수선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임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응모 불가함.
- ▶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표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나. 주요 출품규정

- ▶ A4규격의 포트폴리오 1부(Korean Architecture 2010 작품집 참조)
  포트폴리오는 출품자(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하며, 표지에 작품명, 접수번호 표기
- ▶ 작품사진, 기본도면, 작품개요 · 설명 등이 수록된 DVD 1매
- ▶ 건축물대장(표제부, 현황도 포함) 1부

※ 공동설계 작품인 경우 공동설계자의 출품동의서(명의 동의) 반드시 제출

□ 심 사

가. 심사방법

- ▶ 1차심사 (사진첩심사) : 현장심사 대상작 선정
- ▶ 2차심사 (현장심사) : 현장 대상작 심사
- ▶ 최종심사 : 입상작(대상 · 본상 · 우수상) 선정

나. 심사위원

박 경 립 강원대학교 교수 – 심사위원장
신 춘 규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 창 율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 태 복 (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제 해 성 아주대학교 교수
황 정 복 예문 건축사사무소 대표
권 연 하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장

□ 시상내용

–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

상 명 \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국토해양부 장관상
	민간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해양부장관상	대통령상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본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국토해양부 장관상
	민간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해양부장관상	국무총리상	
	일반주거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시상		

※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 대상, 본상 작품별 대표 설계자, 시공자에 한해 해외건축탐방 특전부여

수상자명단

□ 준공건축물부문

大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김상식(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유)유심종합건설 / 해남군청

• 민간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SK케미칼 연구소 정영균(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에스케이건설(주) / 에스케이케미칼(주)

• 공동주거부문(시공자-대통령상, 설계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성남 판교 산운마을 7단지 김회훈(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계룡건설산업(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일반주거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레티스 하우스 인의식(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 (주)제효 / 최두환

本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인천 어린이과학관 윤세한(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동부건설(주) / 인천광역시청

• 민간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한화갤러리아 센터시티점 김태집(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한화건설 / (주)한화갤러리아

• 공동주거부문(시공자-국무총리상, 설계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삼성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김관중(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성물산(주) / (주)코레드하우징

• 일반주거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쌍용건설 평창동 타운하우스 오보에힐스 윤영건(주.푸름에이앤디 건축사사무소) / 쌍용건설(주) / (주)서림에프씨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울산박물관** 김태집(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한화건설 /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
• **강동아트센터** 변 용(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 강동구청
• **강원애니고등학교** 김명홍(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 / 인텔폴리스 종합건설주식회사 / 강원도 교육청
• **서울대학교 국제교육관** 안우성(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 롯데건설(주) / 서울대학교
• **레드스쿨** 최삼영(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스튜가이엔씨 / 장길섭
•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김정임(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주)금성백조주택 / (학)배재학당
• **DMZ박물관** 이상림(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강원도청
• **경주예술의전당** 고광석(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 경주문예회관운영주식회사
• **부여리조트 백상원** 강원필(주.경영위치 건축사사무소) / 롯데건설(주) / 롯데부여리조트(주)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 이관표(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학)연세대학교
• **페럼타워** 김태집(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지에스건설(주) / 동국제강(주)
• **Fort Hill** 박주환(주.건축사사무소 사이건축) / 스프링하우징 주식회사 / NISCO(주)
• **NHN 그린팩토리** 김관중(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엔에이치엔(주)
• **라꾸보** 이필훈(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남강건설(주) / 노현태
• **신촌성결교회** 최동규(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보아스건설(주) / (재)기독교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신촌교회지회
• **Yellow Diamond** 신창훈(운생동 건축사사무소) / 상지건설(주) / (주)상지건설(주)
• **미래에셋 센터원** 부대진(주.진아건축도시 건축사사무소) / 금호산업(주) / 미래에셋맵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 **양평 패시브하우스** 윤태권(엔진포스 건축사사무소) / 양현수 / 양현수
• **포레스트 퀀텟** 조항만(주.건축사사무소 키아즈머스파트너스) / 신원철 / 신원철
• **송현리 안나의 집** 민승열(주.한빛 종합건축사사무소) / 민혜령/ 민혜령
• **화선대** 고광석(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 마루종합건설 / 윤주화

※ 작품명 양평패시브하우스, 포레스트 퀀텟, 송현리 안나의 집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건축주만 시상하며, Yellow Diamond는 시공자만 시상

심사총평

20회를 맞이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분은 디자인의 수준뿐만 아니라 시공의 완성도에서도 훌륭한 성취도를 이룬 좋은 작품들이 어느 때 보다도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출품된 작품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였지만 우수한 작품이 많아 심사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하여 좋은 프로젝트들이 적절한 수준의 수상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심사에 임하며 심사위원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해 가는 건축을 찾기 위하여 심사숙고 하였으며, 논의된 사항을 간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대의 화두인 친환경성, 에너지 절약, 지속가능성 등을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건축.

둘째, 건축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건축.

셋째, 건축문화대상의 취지에 맞게 건축사와 건축주, 시공자 삼자가 잘 소통하고 협력하여 조화된 결과물을 도출한 건축.

넷째, 전통의 계승과 지역적 정체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깃든 건축과 새로운 가능성을 과감히 시도하여 한국건축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건축.

다섯째, 어려운 건축 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의 건축사와 중소규모의 건축사사무소나 젊은 건축사들의 창작의지와 열정에 대한 주목.

심사위원은 2차 심사인 현지 실사 대상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현지 방문을 통해 보다 좋은 건축을 가리자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유난히도 집중 호우와 더위가 함께한 한 여름의 실사는 쉽지 않았지만 심사위원 모두 좋은 건축을 현장에서 훌륭한 건축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임하였습니다. 예상한대로 우열을 가리기 매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마지막 심사는 매우 진지한 토론이 장시간 이어지고 결정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우수상이 많아진 것은 이런 오랫동안의 토론의 결과임을 첨언합니다.

이렇듯 심사위원 모두는 심사에 임하며 최선을 다한 건축사의 노력과, 건축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건축사와 소통한 건축주, 설계를 완성도 높게 시공한 건설회사 등의 합치된 노력에 주목하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때로는 그들의 이해와 노력에 감동하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축물을 현장에서 보며 건축사와 건축주, 시공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완성된 프로젝트가 역시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건축주가 행복해하며 건축사의 열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때는 심사위원 모두가 참으로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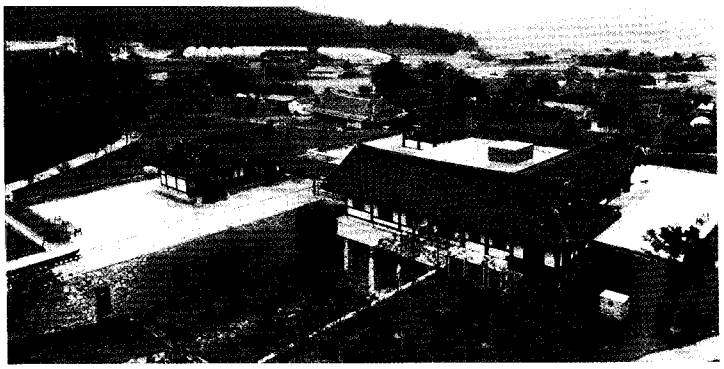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건축사사무소가 수상하고 지역적 분포도 더 다양하였으면 하던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축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았던 공동주거 부분의 경우 제출된 프로젝트의 수도 적어, 공동주거에 대한 보다 참신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외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의 협업으로 설계했을 경우 국내 건축사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심사가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정리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올해에도 건축적으로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판단하였으나 한국건축사의 역할이 모호하거나 건축주가 실사를 거부한 경우는 수상심사에서 제외하였음을 첨언합니다. 기나긴 심사 기간 동안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웃는 얼굴로 함께 하신 심사위원 모두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관계자 및 담당실무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위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듯 각 지역이 갖는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큰 관심을 갖고 심사에 임하셨고 각기 다른 지역의 정서와 가치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보람 있는 심사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좋은 작품이 출품되어 대한민국 건축의 수월성과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를 기원합니다.

심사위원장 **박 경 립**

준공건축물부문 大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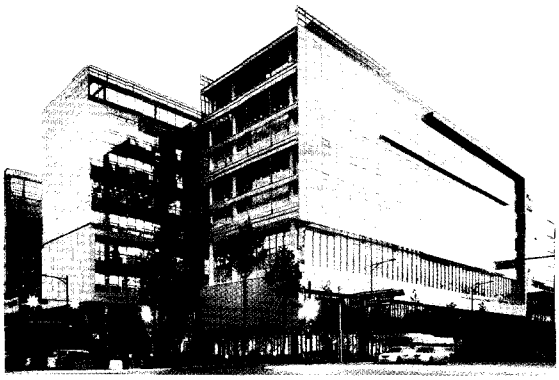
사회공공부문_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전통한옥의 가치를 현대건축에 창의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항상 쉽지 않은 일로, 섣부른 한옥의 차용은 다양한 시도를 가로막기도 한다. 전통 마을의 기존 질서를 최대한 존중하며 한옥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 주산인 덕음산으로부터 녹우당, 연지, 송림, 안산으로 이어지는 마을 축을 방해하지 않고 조금 벗어난 곳에 입지하여 마을 초입으로부터 기존의 경관을 존중하고 드러내고 싶은 전시관을 적절히 절제하며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 전시관은 전시관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기능을 지형의 형태와 조화시키며 요구된 프로그램을 잘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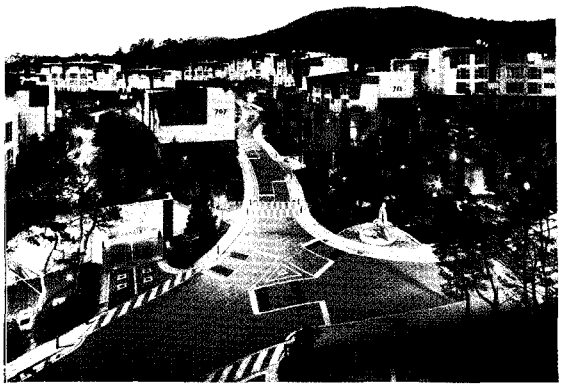
특히 마을 전체의 산세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전시실을 지하에 배치하면서도 지형을 활용하여 외부의 자연을 실내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유입한 것이 돋보이며, 자칫 거대해질 수 있는 전시관을 적합한 규모로 분절시켜 전통 마을의 스케일을 지키려 한 것도 높이 평가되었다. 부속 건축물들도 적절히 분절되고 거리가 설정되어 전체적으로 한옥과 한옥 마을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 내에서 선큰, 아트리움, 내부계단 등 요소가 많아 건축디자인 면에서 제약요소가 많았음에도 이를 훌륭히 풀어냈다고 보았으며, 녹우당의 처마 및 지붕의 통풍구 등 기존의 다양한 건축적 요소를 응용하고 아트리움 상부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아트리움 내의 간접채광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 것 등도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다. 실내 전시실에 사용된 일부 재료의 이질감과 다소 거친 사용과 건축과 합일되지 못한 전시가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전통한옥언어와 첨단 기술의 적절한 결합을 시도한 전통한옥을 살아있는 현재의 언어로 번안해 내려는 노력이, 전통을 다룬 출품작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희소성과 함께 높이 평가되었다.

민간부문_SK케미칼 연구소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삼위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수작으로 평가 되었다. 특히 건축주의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환경건축 도입의 열정이 과감한 투자와 함께 높은 완성도에 다가갈 수 있게 한 건축물로 평가되었다. 성격이 다르지만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연구동과 사무동을 두 개의 매스와 아트리움을 이용하여 적절히 연결하고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절제된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의미 있게 평가 되었다. 아울러 연구기관으로서의 독특한 아이덴티티와 상징성, 최첨단 연구시설로서의 최적의 연구 환경 제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교류공간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기능과 설비의 전문화,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연구실험동과 행정지원동으로 분리하고, 연구실험동은 최적의 표준모듈 구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 변경, 확장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돋보였다. 친환경설계가 이 시대의 주요이슈가 되고, 많은 건축이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실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설계를 위해서는 디자인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적요소의 위계를 설정하고 그의 맞는 친환경적 설계요소와 기술을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이 건축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초기부터 건축 전체를 친환경건물로 디자인 하려는 시도가 일관성 있게 진행 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아트리움의 자연광 유입과 벽천의 자연친화형 설계, 기밀성, 3중 유리의 단열성 등 친환경설계기법을 도입하며 100여 가지가 넘는 친환경요소를 실제적으로 적용한 노력이 돋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설계적 고려가 아트리움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과 사무실 레이아웃의 유연성이 보다 확보 되었으면 하는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1층 로비를 개방 하고 지하 일층에 공연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소통을 하려는 노력도 보이나 한정된 공개공지와 폐쇄적인 조경 등 공공에 대한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완성도에서 높은 성취를 이룬 수작임에 심사위원 모두 동의하였다.

공동주거부문_성남 판교 산운마을 7단지



구릉지 지형의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각 영역특성에 적합한 주거유형을 다양하게 계획한 것은 천편일률적이던 공동주거 문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특히 중·저 밀도의 저층 공동주거를 실현하여 고층·고밀도의 공동주거에서 탈피한 좋은 선례로 논의 되었다. 완성도 높은 마감과 지형과 함께 한 주동계획, 주민을 위한 공공 공간의 효율적인 도입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대지의 자연지형을 거스르지 않은 경사지를 활용한 배치계획은 각 주호별 평면 계획과 적절히 구성되어 주민의 프라이버시의 확보와 공공영역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하게 구성된 벽체와 창호계획은 획일적일 수 있는 경관을 다양하게 하며 자칫 폐쇄적이 될 수 있는 공동주거의 단점을 줄이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아파트 단지에서 전통마을에서의 공동체 인식을 회복하려는 최근의 노력을 반영하여 단지 내 공공 공간을 곳곳에 확보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노력도 평가 되었으며, 기존 지형에서 흐르는 2개의 실개천을 단지 내 비오톱(Biotope)으로 연결하여 단지 환경을 유연하게 한 것과 뒷산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매스계획과 스킨 디자인, 절제된 색채계획 등도 높이 평가 되었다.

일반주거부문_레티스 하우스

'가족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넘어 '삶의 행복을 담아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을 추구한 수작으로 평가 되었다. 살아오며 틈틈이 모아온 귀중한 예술품과 가구를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음미하며 함께 하려는 건축주의 요구와 그를 건축적으로 승화시켜 담아내려 한 건축사의 열정이 어우러져 나온 수작이다. 주어진 과제를 수학 문제 풀듯이 접근하여 각 부분에서 전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건축언어를 질서정연하게 적용하며 가옥의 하모니를 이루어 내려 한 건축사의 내공이 엿 보인다. 절제된 매스와 사려 깊게 안배된 창호의 위치와 크기는 내·외부 공간의 즐거운 대화의 반영이며, 전시될 작품과 그 배경이 될 벽면의 크기 또한 퍼즐을 맞추듯이 정리되어 자연의 빛과 소리가 함께 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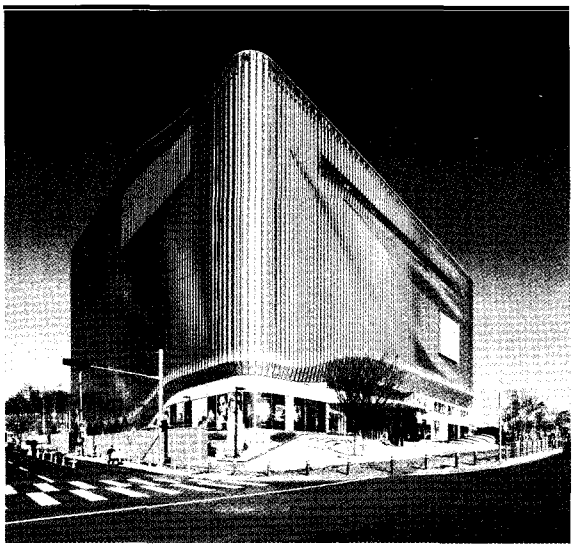
대지에서 조경, 방의 설계에 이르기까지 그리드 패턴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성취하려는 설계자의 건축적 철학이 좀 더 유연하여야 할 집이라는 공간을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었으나 레벨의 적절한 활용과 각 공간의 높낮이 조정을 통해 지루함을 없애고 있다. 거주 후 매우 만족스러운 건축주의 평가는 이미 초기 설계과정의 소통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준공건축물부문 本賞

사회공공부문_인천 어린이과학관

어린이과학관으로서 기능을 창의적인 형태와 공간으로 실현한 수작으로 평가되었다. 유연한 외부 형태와 걸 맞는 적절한 재료와 색상의 조화는 산만 해질 수 있는 공간을 차분하면서도 활력 있게 해 주고 있다.

10세 이하 어린이들의 꿈과 비전을 받아주려는 다양한 콘텐츠는 적절한 치수가 반영된 내부 공간계획과 어우러져 어린이들을 미래와 꿈의 세계로 인도한다. 내부공간의 흐름이 전시계획과 함께 잘 조화롭게 완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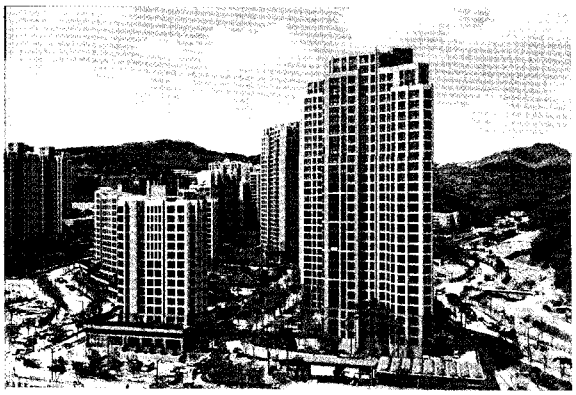


민간부문_한화갤러리아 센터시티점

매장의 고밀화와 부분적인 상품 진열에 집중하여 전체의 조화를 흩트리기 쉬운 상업건축물에 과감하게 고객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을 도입하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내부 아트리움의 건축적 해석과 더불어 변화하는 색상의 더블스킨을 도입한 적극적 외관, 공공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상업공간으로의 유입과 유연하게 이어지게 한 것 등 전반적으로 역동적이면서 정리가 잘 된 수작이다.

공동주거부문_삼성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20m가 넘는 경사진 부지의 어려움을 적절한 레벨 활용을 통하여 극복한 배치 계획과 우수한 시공완성도와 수준 높은 조경공사,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주민편의시설이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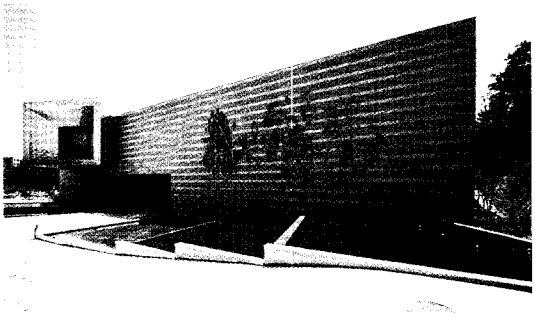
입체적 보차분리 및 지하주차장 내 보행자통로는 거주자에게 안정성 및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동별·각 세대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있으나 세대 간 소통을 위한 공간 배려의 아쉬움이 논의되었다.

일반주거부문_쌍용건설 평창동 타운하우스 오보에힐스

경관이 수려한 매우 가파른 경사지에 입지하여 적절한 밀도를 찾기 쉽지 않았음에도 주변과의 조화를 잃지 않으려는 건축사의 노력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단독 주택 같은 집합주택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엿 보이는 이 타운 하우스는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를 염두에 둔 배치계획, 절개지의 경사도와 매스의 일체화, 절제된 마감 재료와 색채계획이 두드러지며 각 가구별로 주변의 경관을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며 향유할 수 있게 한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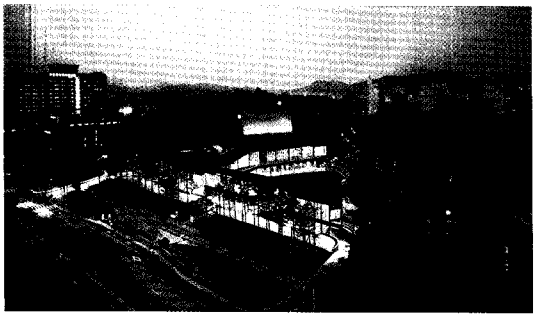
준공건축물부문 優秀賞

울산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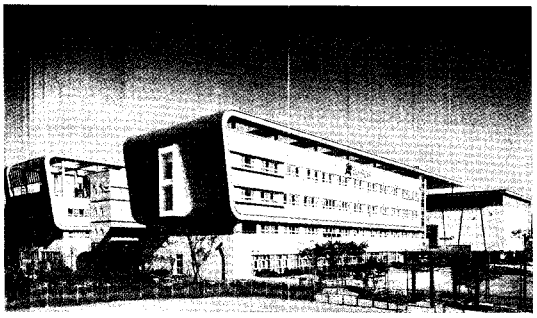
장구한 울산 지역의 역사 문화뿐 아니라 한국의 부흥을 이끈 울산시 산업의 역량을 함께 담으려는 이 박물관 건축은 건축사와 열정적인 건축주가 함께 만들어 나간 수작이다.
입지한 지형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역사의 자산을 미래로 연결하려는 박물관 측의 의도를 건축적으로 적절히 전환하려한 노력이 평가 되었다.
명쾌한 평면과 중정을 이용한 공간연계, 박물관 운영 자립을 위한 적절한 상업공간의 도입 등 신선한 시도가 돋보인다.

강동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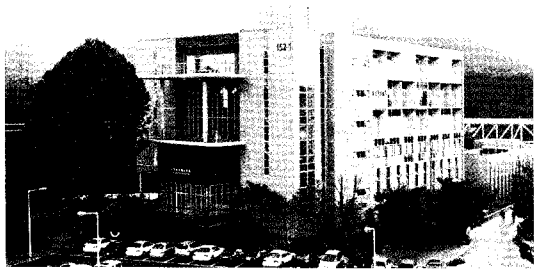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담아내는 다목적 공연 문화공간으로 계획된 '강동아트센터'는 장소적 컨텍스트에 동화되면서도 주변에 존재하는 건축물과 다른 공간적, 형태적 해석이 돋보이는 수작으로 평가 되었다.
외부에 부착된 패널의 형태적 특성, 건물 진입동선 체계, 용도에 따라 개방된 공간과 폐쇄된 공간을 조합한 내부공간의 구성, 내부의 채색 등은 기능성과 공간적 감각을 동시에 고려한 건축사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강원애니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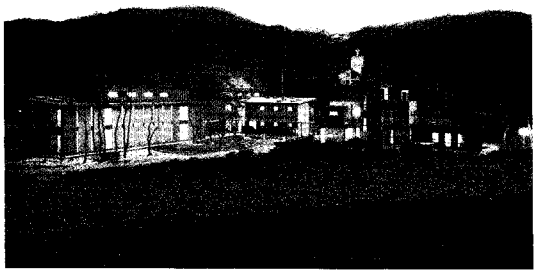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기관인 이 건축은 일반, 특별교실의 적절한 기능성 확보와 진취적인 색채계획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교사, 사무동, 기숙사동, 식당, 실험 실습동의 4개의 영역을 조화롭게 배치하였고, 학교에 맞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재적소에 잘 반영하고 있다. 설계의 완성도에 비해 시공의 완성도는 다소 부족한 것이 논의 되었다.

서울대학교 국제교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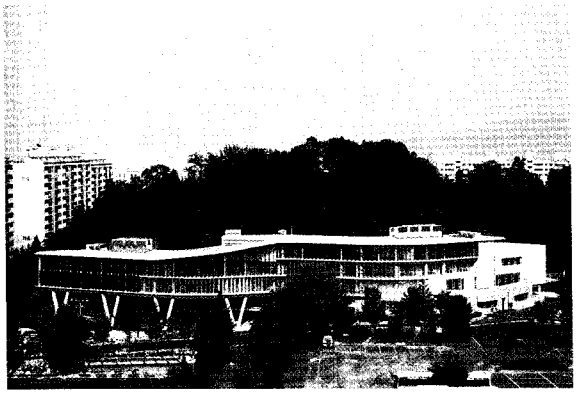
외부의 지형차를 적절히 활용하며, 자연광 가득한 중앙 아트리움과 이어진 다양한 모습의 계단이 인상적인 이 건축은 천편일률적이 되기 쉬운 보수적인 우리 대학 건축의 진부함을 벗어나려는 건축사의 노력이 엿 보인다.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은은히 건축의 특색을 드러내려는 틈의 기법을 이용한 더블 스킨 디자인 등이 시선하나 마감공사의 시공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레드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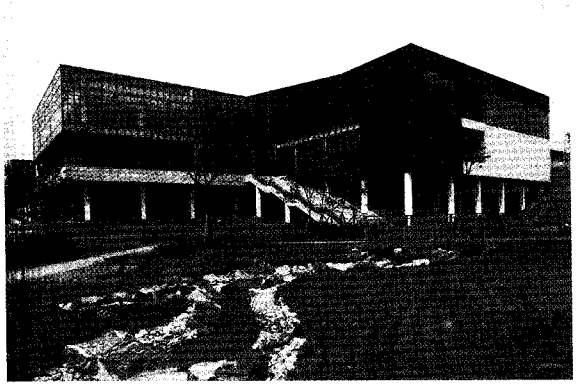
도시를 떠난 농촌 지역에 자리 잡은 대안학교의 개념을 잘 살리고 있으며, 색채계획, 공간계획, 자재사용 등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다.
건축주의 열려진 사고와 그에 적절히 대응한 건축사의 노력이 대안을 찾고 있는 학생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적절한 재료의 발굴과 그에 걸맞는 디테일을 축한 건축사의 노력이 돋보인다.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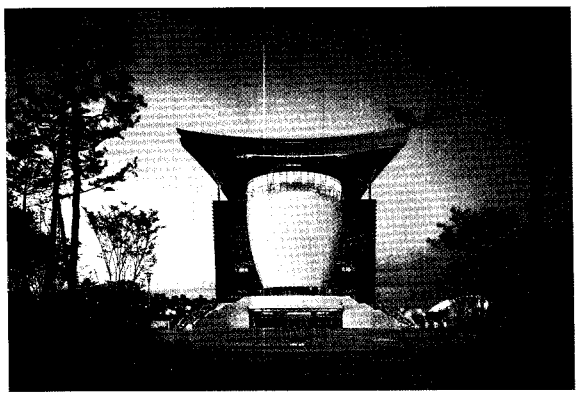
도로에 접하는 긴 선형과 협소한 대지 폭의 한계를 적절한 기능 배분과 레벨 활용으로 조화 시킨 수작이다.
유아원과 대학 관련 학과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도 적절히 분리시키며 환경적 고려를 단면과 입면 계획에 일치 시키려한 노력이 돋보인다. 적벽돌과 노출콘크리트, 곡선의 조합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DMZ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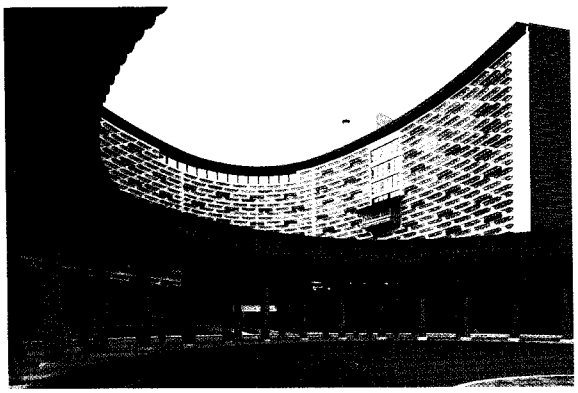
분단의 아픔을 넘어 미래의 희망을 담으려는 지역의 염원이 담긴 건축으로 다양한 내부 전시가 시도 되고 있다.
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DMZ의 살아있는 자연요소들을 건축에 이입하고자 하였던 건축사의 의도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해 아쉬움이 있으나 20세기 중반의 민족의 비극을 다양한 기법으로 담아내고 있다.

경주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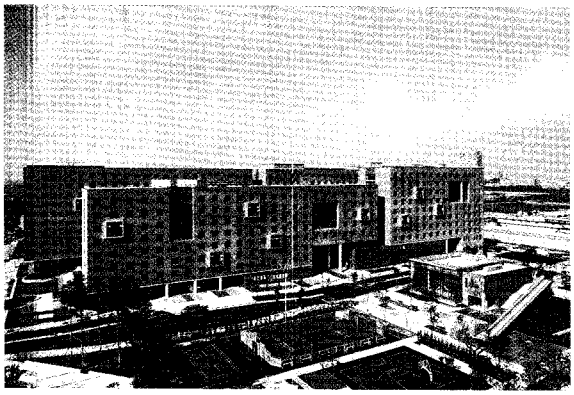


형태의 두드러짐과 마감의 완성도, 중앙 공간의 극적 구성, 주변의 경관을 드라마틱하게 담아내려는 노력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제한만 받아온 경주 지역에도 상징적인 큰 규모의 건축물이 있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지역의 전통적 경관을 압도하는 큰 스케일과 상징물의 직설적 도입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필요성이 길게 논의되었다.

부여리조트 백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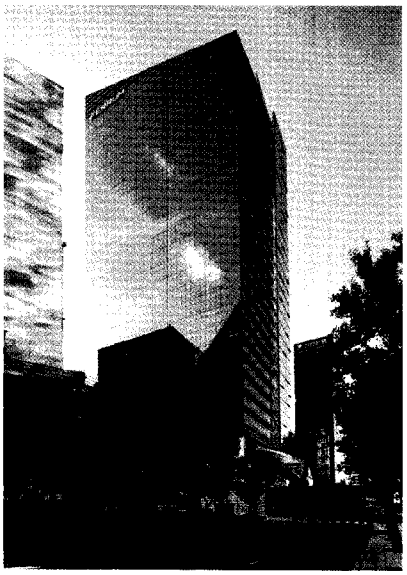
고도 부여의 백제재현단지 건너편에 지어진 이 건축은 전통의 창조적 변주라는 주제에 과감히 다가가고 있음에 높이 평가 되었다.
역사문화 환경이이라는 매우 어려운 주변 환경의 제약과 요구되는 부담스러운 매스의 크기를 말발굽형의 길고 유연한 선적 요소의 도입으로 중화시키고 과감한 재료와 색채의 도입으로 무거움을 지우고 있다.
진입공간과 건물 상층부에 상징적으로 도입한 한옥의 구성, 효율적인 재료와 구법의 도입 등으로 저비용으로 완성도를 높인 좋은 건축으로 우수상을 넘는 평가를 받은 수작이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

간척지의 건축물 한계를 극복한 배치계획 및 높낮이 계획, 인상적인 장스팬의 브리지 도입 등 지루해질 수 있는 규격이 주어진 마스터플랜 속에서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공간과 형태를 시도한 수작이다.

국제 캠퍼스답게 기숙사의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숙학교의 나누어진 답답할 수 있는 공간을 레벨을 활용한 넓은 공간을 다이내믹하게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해소하며 학생들의 휴식과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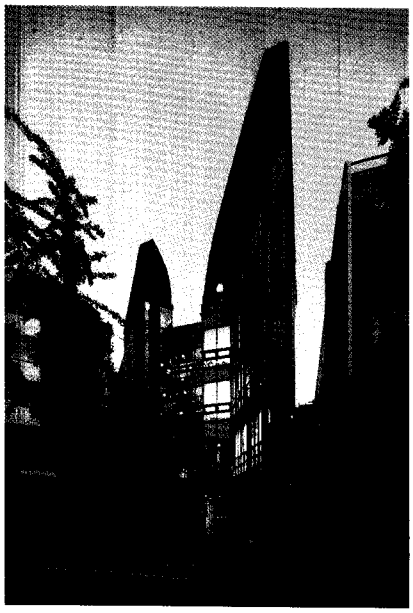


페럼타워

동서를 잇는 아트리움과 공개공지를 소통과 순환의 길로 오픈하고 건물 깊숙이 끌어드려 가장 번화한 지역에 과감히 공공적 공간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 되었다.

수정체를 모티브로 한 철강회사의 사옥으로 내부 디자인과 시공의 완성도가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건축주의 건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돋보이는 수작이다.

업무공간의 구성과 배치, 임원공간의 내외부의 연계성이 탁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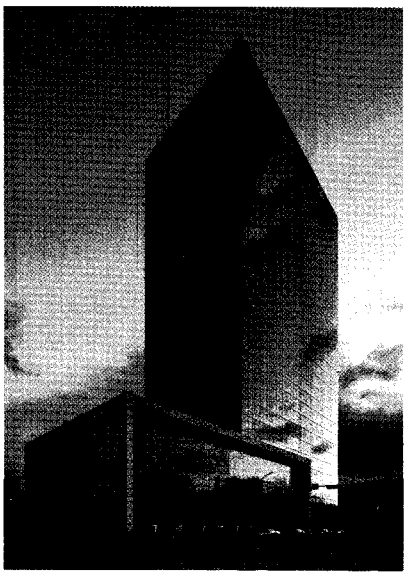


Fort Hill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비정형의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한 건축사의 노력이 돋보이는 건축이다.

최대의 용적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건축주의 의향을 건축적으로 잘 풀어 낸 프로젝트이다. 전면도로에 6m 접한 협소한 대지사이에 끼어 넣은 우수한 작품으로 건축설계에 대한 작가의 의욕과 열정이 시공성에 반영된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로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공간을 독창적으로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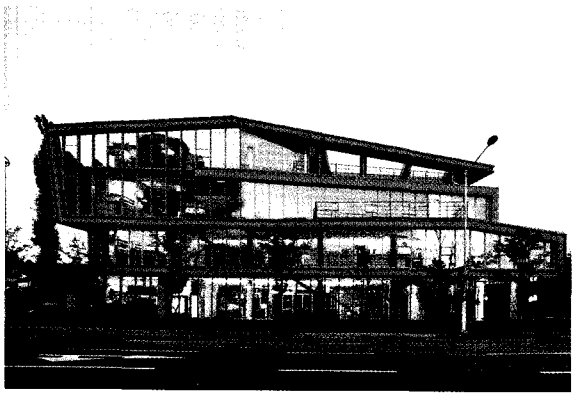


NHN 그린팩토리

저층부의 공용공간을 과감히 이웃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하여 성공을 거둔 건축으로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구현의 한 모델이 되고 있다.

철저한 보안을 필요로 하는 건축임에도 공공성 구현을 위한 다양한 건축계획을 시도하였고 다양한 친환경 요소의 도입과 독특한 구성으로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근무자의 창의성 진작을 위하여 사용자 위주의 독창적인 실내 공간 구성, 수직 루버에 의한 빛 조절과 친환경 스킨 디자인, 내부마감 재료의 절제로 인한 경제적인 시공, 많은 자전거이용자를 배려한 공간계획 등 건축적 시도가 어우러진 수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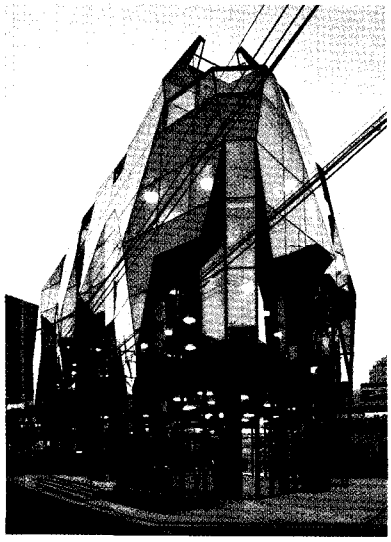
라꾸보

천안 외곽의 리조트 단지 주변 생태연못을 연접하여 자리 잡은 레스토랑으로 주변의 경관을 실내에서 소통하며 감상할 수 있게 투명성을 극대화한 건축이다. 땅의 흐름을 잃지 않게 자리 잡고 징크, 유리, 노출콘크리트가 잘 어우러진 조형이 돋보이는 젊은 건축사의 열정과 의욕이 담긴 건축이다.

신촌성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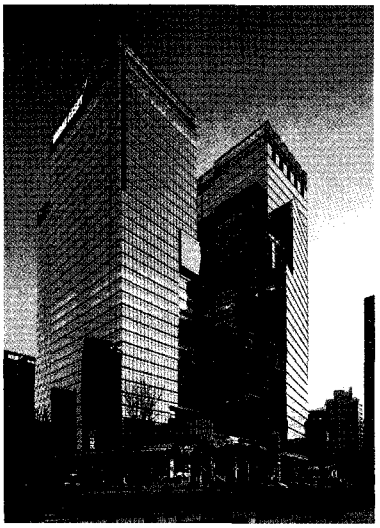
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을 과감히 탈피하여 도심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한 뛰어난 작품으로 대상작 선정에 끝까지 논의되었던 수작이다. 엄숙하고 어두운 공간을 탈피하여 밝고 친밀한 공간을 만들고 폐쇄적인 공간성을 벗어나 주변 환경과의 소통을 시도한 이 건축은 적절한 재료의 선정과 디테일을 구사하여 비교적 저렴한 공사비로 완성도 높은 건축에 이르고 있다.

밝고 투명하며 가벼운 진입부와 열려진 사회적 공간은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역할과 소통을 보여준다. 그러나 적절한 깊이와 높이로 잘 짜여진 중심의 부채꼴 형태의 주 예배당은 적절한 조명을 활용하여 빛의 새로운 도입으로 깊이 있는 종교적 공간성을 체험하게 한다.



Yellow Diamond

홍대 앞 특성에 맞는 새로운 조형의 가능성을 시도한 건축으로 주변과 대비되는 건축이다. 지하에는 난타공연장이 있으며 상층부는 상업시설과 오피스가 복합적 구성된 복합건축물로 개성적인 형태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기능의 수용과 유리 된 듯한 자유로운 평면과 입면 속에서도 건축적 가능성과 어휘를 구사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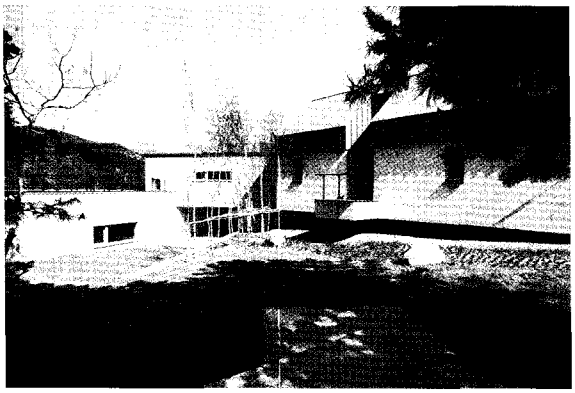
미래에셋 센터원

을지로 도시환경재개발사업의 일환답게 대형 도심건물의 공공에 대한 배려가 높아 평가된 건축이다.

저층부의 로비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청계천변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감히 전면 광장을 개방하여 수동적인 공개공지조성을 넘어 적극적인 광장 조성을 통해 도시에 기여하는 건축의 공공적 역할을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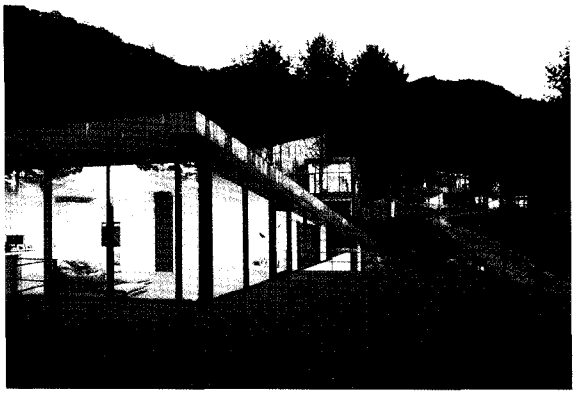
2개의 매스로 구성하여 거대한 매스감을 줄이고 다리를 놓아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커튼월 구조의 사용으로 잘 정돈된 외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평 패시브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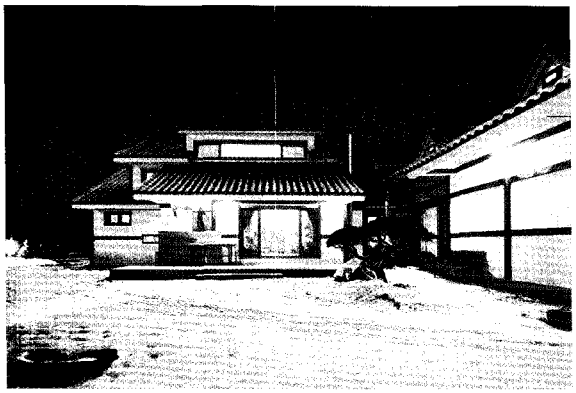
노출콘크리트, 징크판넬, IPE목 등을 적절히 사용하며 에너지 절약형 주거를 추구한 실험정신이 배인 작품이다. 친환경제로하우스 인증을 목표로 한 구성에도 건축주의 생활을 잘 받아 담으려는 시도가 돋보인 수작이다.
건축주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였으며 주변 지형을 잘 활용하고 주인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상당히 높은 주거이다.

포레스트 퀸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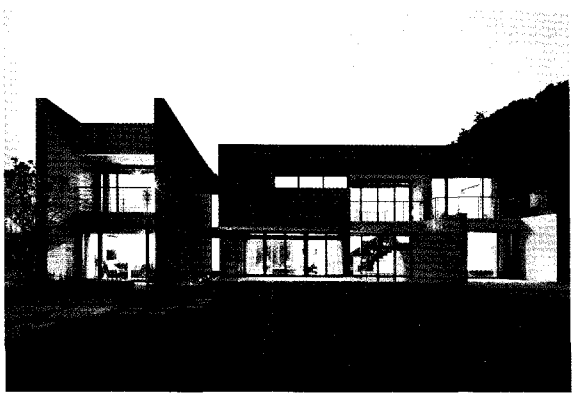
양구 깊은 산간 언덕위의 동호인 모임을 위한 전원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이다. 침엽수에 둘러싸인 깊은 산속에 주변을 경관을 모두 담으려는 듯 개방적인 구성으로, 외장 IPE목이 외부 침엽수들과 잘 조화를 이룬다.
지형에 각기 순응하며 자리 잡은 각 주거는 자연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적절한 배치의 묘를 살려 각 가구의 프라이버시를 획득하고 있다.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진 형태와 그 형태 속의 공간의 섬세함이 어우러진다.

송현리 안나의 집



건축적 언어의 독창성이나 진취성이 엷어 보이나 삶의 오랜 연륜이 배어있으며 가족의 안정과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집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주거이다.
전원에 자리 잡은 이 가옥은 주변의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전통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으며 땅의 모습을 잘 살리며 자리 잡고 있다. 조금 어색한 비례감도 있으나 농촌생활의 유형을 잘 담아낸 따뜻한 주거이다.

화선대



2세대가 사는 규모가 큰 고급주거로 라임스톤과 IPE목의 적절한 구성, 내 · 외부 재료의 적절한 선택과 컬러의 조화, 간결한 선, 내부 평면의 정갈함과 잘 정리된 중정, 시공의 정밀도 등 완성도가 매우 높은 주거 건축이다.
레벨을 잘 활용한 마당의 구성과 잘 가꾸어진 조경은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잘 펼쳐진 정원을 감상하게 한다. 안식처이자 휴식의 원천인 집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계획건축물부문

□ 행사일정표

- 작품공모공고 : 2011. 3.16 ~ 6. 3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5.50 ~ 6. 3 (kaa.kira.or.kr)
- 접수
  - 1차 작품계획(안)접수
    - 1차 작품접수 : 2011. 6. 7 ~ 6. 8
    -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2차 패널 및 모형접수 : 7. 12
    -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심사 :
  - 1차 작품계획안 심사 : 6.14
  - 2차 패널 및 모형심사 : 7.20
  - 3차 작품설명 프레젠테이션 심사: 7.22
- 시상식 : 10. 20. 10:00 / 코엑스 1층 A홀
- 수상작 전시 : 10. 27~30 / 장소: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

□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 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Social Interface – 사회적 결합"**

  – Transcendence between convene and intervene –단절과 연결, 그 경계를 초월하다
- 주제설명 :

배경 21세기는 비약적인 IT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많은 교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핸드폰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친구와 서로 안부를 전할 수 있고, 태블릿 크기의 전자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핸드폰을 통해 서로 대화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제 직접 만나서 소통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직장인들은 모두 사무실 혹은 집에서 컴퓨터와 소통할 뿐 사람들과의 대화는 태블릿 장치들이 모두 이를 대체하고 있다. 노년 계층의 사람들은 그런 그들과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고, 도심 밖으로 점차 벗어나고 있다. 같은 사회에 몸 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소외된 채로 남아있다. 같은 목적을 위해 만난 이해집단 속 사람들도 이제는 직접적인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 자신과 연결된 핸드폰 혹은 태블릿 크기의 전자매체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아닌, 손가락을 이용하여 서로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가상(온라인) 공간 속의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과 대화한다. 이것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폭발적인 증가와 사용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들은 SNS의 사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심취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소외 계층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한없이 사회로부터 고립 되어 간다. 그러하기에 건축과 도시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만남의 장소가 아닌, 그들의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거대하고 단순한 매스로만 인식되며,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보다, 마치 원시시대의 동굴처럼 무언가로부터 도피하거나 단순한 기능적 제공만을 위 한 장소로 전락하게 되었다.

정의 'Interface'란 다이얼이나, 조이스틱, 컴퓨터나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운영체계의 명령어, 그래픽 표현형식 기타 다른 장치들과 같이, 사용자가 컴퓨터나 프로그램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동사로 사용될 때, 다른 사람이나 객체와 의사소통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축 혹은 도시에서는 특별한 정의가 아직 없지만, 이러한 일련의 도시와 도시, 건축과 건축, 혹은 사람과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모두 포함한다 할 수 있겠다.

전개 비단, 이러한 단절의 문제는 현재 세대간의 단절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에는 도시의 단위 계획 혹은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 무장애 공간(Barrier free)은 있지만, 하나되어 연결되지 못한 채, 장소와 장소를 이어주지 못한다. 같은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장소도 없다. 청소년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장소도 不在하며, 전체 인구의 분포는 장년층이 많아 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노년 계층을 위한 사회적 건축적인 변화와 결합은 없다.

제언 사회적 소외계층과 지배계층 간의 단절을 이어주는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노년계층과 유년 계층의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세대간의 연결도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여 공생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건축은 더 이상 매스 혹은 오브제로서의 의미에 치중하기보다 사람들간의 혹은 건축간의, 이 도시는 이제 하나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단순한 1차적 대안이 아닌, 그들이 사회와 더불어 함께 공유하고 순환하며 결합하는 다차원적인 대안을 기대해 본다. 이로써, 대상지의 제약도 프로그램 및 볼륨의 제약도 없다. 노년층을 위한 실버 타운도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으며, 소외계층간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주거 형태도 가능하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분리된 공간을 이어주는 가로변 가구계획안(Street Furniture)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구하고자 하는 해답이 아님을 알아주기 바란다. 대상지의 분석은 지역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설득력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소통의 의미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단절의 문제를 건축적으로 혹은 도시적으로 타당한 논리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아이디어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출자의 다양하고도 설득력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속 가능하며, 점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형태면 더욱 좋은 제안이 될 것이다. 디지털과의 조우였던 Interface의 의미를 좀 더 건축적, 도시적의 관점에서 바라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한다.

Tags: 결합(Interface), 동화(Integration), 공생(Symbiosis), 하나됨(Harmony), 점진(Progressiveness), 조우 (Encounter)

- 출품자격 :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나. 주요 출품규정

– 1차 작품접수

- 작품계획안 A2(가로42.0㎝×세로59.4㎝ – 종방향으로 구성) 1부 –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판이 아님.)
  - 작품계획안은 전면 우측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이 접수번호표를 부착하여 제출 (작품계획안 폼보드 · 우드락 부착 불가)
- 작품설명서 1부(A4 1매)
  - 작품설명서 전면 우측상단에 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야 하며, 참가신청 작품명 · 작품계획안 · 작품설명서 제목이 동일해야 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의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을 확인할 수 없

도록 제작해야 함.

– 2차 작품접수

▶ 패널 A0(가로84.1㎝×세로118.9㎝ – 종방향으로 구성) 1매

– 작품계획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주제를 발전시켜 표현

• 패널 두께는 10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폼보드 및 우드락 부착하여 제출

• 패널 전면 우측상단에 1차와 같은 양식으로 접수번호표를 부착하여 제출

▶ 모형

(가로×세로 80㎝×80㎝, 높이 50㎝ 이내 – 모형대 제출 및 외부전원장치 지원 불가) • 모형접수번호는 접수현장에서 부착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외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의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3차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일은 추후 공지

□ 심 사

가. 심사방법 : 패널 및 모형 심사

나. 심사위원 :

인 의 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대표 – 심사위원장

김 상 길 (주)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 형 수 씨디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 순 란 for you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 재 욱 단국대학교 교수

조 정 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탑 대표

이 각 표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

□ 시상내용

▶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해양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우수상(5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특 선(6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입 선(20점 내외)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우수상 이상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중 영어 인터뷰 심사를 거쳐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수상자명단

□ 계획건축물부문

大賞(국토해양부장관상)

• **아날로그 칩** / 김태선, 우원석, 허은영(단국대학교 건축학과)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도시에 살 자격을 얻는다는 것** / 박시몬, 김성수(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노마디즘과 도시의 재생** / 김가영(단국대학교 건축학과)

• **걸으며 만나는 삶의 이야기** / 김현주(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전공)

• **단지 비워져 있는 것은 열린 것이 아니다** / 김진표, 이용훈(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

• **유동적 커뮤니티, 재래시장의 가치를 잇다** / 주연홍, 김두리, 강준성(전남대학교 건축학과)

特選(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너에게 접속하다** / 김영인, 방성윤, 이민기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 **그 씨앗들은 며칠 있으면 발아할 것이다** / 이종상, 현지연, 윤소라(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사회적 소통의 제안** / 서규석(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도시 내 소외된 공간의 환원** / 안재현, 한준희, 최홍석(중앙대학교 건축학부)

• **은둔자를 위한 도시 회로** / 임현택(단국대학교 건축학과)

• **벌집사이-노동자주거, 사이공간을 통한 커뮤니티제안** / 이다영, 이슬기, 김현진(목원대학교 건축학과)

入選(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대학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도심 순환체 가로공간 계획** / 고우현, 박은지, 신동우(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농업** / 허지훈(단국대학교 건축학과)

- **도시와 땅의 경계에서…** / 허성훈, 김재영, 이지현(계명대학교 건축학과)
- **유토피아의 반(反)이상향** / 서두원(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사회적시간의 공존** / 이숙민, 신영빈, 송 일(서울예술대학 실내디자인과)
- **노유자와의 교감을 커뮤니티로 답하다** / 최병원, 김여진, 김기웅(울산대학교 건축학 전공)
- **사회적 클러스터-통합을 위한 플랫폼** / 김성희(단국대학교 건축학과)
- **회색빛 위에 색깔을 입히자** / 신수정(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 **새로운 환승개념을 이용한 소통의 신도림역사** / 김찬우, 강호영, 최용기(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 **서촌 갤러리마을 안내도** / 김 민, 손상은(숭실대학교 건축학과)
- **돈의동, 도태된 도심 속 자기 역할 찾기** / 최은영(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 **도시 안에서 삶을 찾다** / 정상우, 배혜림(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기억의 공유를 통한 치유** / 김민혜, 김용균, 이윤희(전남대학교 건축학과)
- **빛과 공간의 풍경** / 김용섭, 홍기준(전남대학교 건축학과)
- **경계 위의 유희** / 윤진용, 남윤정(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공생을 위한 유전구조** / 김응철, 강봉성, 최종욱(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사이공간으로서 부산역 철도부지의 북항연계 재개발계획안** / 이희련, 정희경(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잠재적 경계공간을 통한 소생** / 김남현, 이진호(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 **커뮤니티 코어** / 이재형(인하대학교 건축학과)
- **종로 가로구조 변화 분석을 통한 역사박물관 계획** / 곽성주(숭실대학교 건축학과)
- **더 이상 이방인이 없는 이태원** / 유 청(아주대학교 건축학부)

□ 올해의 건축문화인상(국토해양부장관상)

박 길 룡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 공로상

황 일 인 (주)일건 건축사사무소 대표 / **박 경 립** 강원대학교 교수

심 사 평

인 의 식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 심사위원장

요즘 IT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수많은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들의 삶 자체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그동안 세대간,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 또 하나의 단절의 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그룹은 태블릿 PC, 핸드폰을 통하여 말과 행동이 아닌 손가락으로, 또한 이들 간의 언어로, 가상의 공간 속에서 대부분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미래에 보다 빠른 환경 또는 새로운 성능의 완벽한 기계적 환경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아날로그 그룹은 구석기 시대 DNA로 작동되는 우리 몸의 구조와 신체리듬으로 이러한 현실과 많은 충돌을 겪으면서 어렵게 적응해 나가고 있으며, 자연을 닮은 생태환경 속에서의 원초적인 삶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수만 년간 천천히 진화하며 살아왔던 인류의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요즈음의 모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 건축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의 중심에서서 양측의 속성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문제점을 건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학생부분 계획 건축물 주제로 Interface(소통)로 설정되었습니다.

입상작품 선정 기준으로 주제에 적합성 여부와 진행과정에서의 프로그램 전개방식, 사이트와의 연계성, 형태를 만들기 위한 내적 논리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여 심사되었으며, 역량 있는 심사위원님들 덕분으로 작품선정에 있어 이견 없이 쉽게 입상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의 열의를 보면서 한국건축이 밝은 미래를 보았으며, 한편으로는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미래 한국건축의 주역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 모두 수많은 시간을 밤새우며 자신의 혼을 심어놓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비록 입상되지 못하였어도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건축에 입문하면서 꿈꾸어왔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상 길 / (주) 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2011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전의 주제는 '우리사회의 마이너리티를 위한 건축사의 시선에 관한 것이었다. 건축사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건축사의 위상은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진정 건축사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공헌한다면 어떠한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이 공모전의 주제가 주어졌으며, 특히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그러한 의식의 중심에서 가장 첨예하게 사회에 맞닿아 있는 입장에서 차세대 건축사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고민하고 정교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있다.
학생 공모전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한한 상상력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상력이 공공과 사회를 향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혹은 자본에 봉사하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사회에서는 그 상상력에 대해서 어떠한 소중함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건축에 있어서 상상력은 물리적 실체로서 늘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거대한 체계 안에서 작동하게 되며 그러므로 당연히 그 배경이 되는 사회를 바라보며 사회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서 바라보고 키워나가야 할 대상은 결국 우리 사회인 것이다.
마이너리티는 바로 학생공모전이기 때문에 전면에 설 수 있다. 그 어떠한 사회에서도 지금까지는 사회적 마이너리티에게 건축적 풍족함을 선사하지는 못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지만 지어지지 않을 건축을 제안하는 학생 공모전이야 말로 현실화 되지 않는 상상력을 한껏 드러내 표현하고 그 의식을 선언하는 하는 자리이고, 이것이 바로 학생 공모전의 로망이다. 우리사회의 마이너리티는 누구인가? 빈민, 탈북정착민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소년 소녀가장과 그들 가족, 노인 특히 독거노인과 농촌의 자족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실업자, 노숙자, 여성 특히 상처받고 학대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 미혼모, 버려진 아이들 특히 영아원이나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새싹들, 주류 사회에 진입하고 못하고 떠도는 젊은이들, 노동과 착취에 시달리는 노동자,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하층 노동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약자이자 소수자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서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회되는 계층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들이 불행한 사회라면 우리사회 역시 불행한 사회이며, 이들을 배려하는 사회는 그 만큼 성숙한 사회이다. 과연 이들이 기대서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이러한 의식을 여러 가지 상상력으로 풀어내었다. 직접적으로 마이너리티를 위한 건축을 제안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보부재와 같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또 다른 소외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소외와 소통의 부재를 주제로 한 작업도 이러한 주제에서 맥을 같이하며 또 다른 상상력을 드러내 보여 주었다.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디지털의 시대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정보의 수집을 통해서 정보로부터의 소외와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건축적으로 제안한 문제의식이 예리하게 우리 사회의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완성도 높은 건축작업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함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전통시장이 대형 마트와 SSP와 같은 새로운 상업공간에 밀려나가는 현실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지키고 결국 우리의 소중한 민중의 장소로 다시 설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주제에 대한 해석과 이를 녹아낸 건축 작업은 정말 소중한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심히 참여한 모든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김 형 수 / 씨디에스 건축사사무소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아주 많은 수의 작품이 응모하였다. 건축 경기가 어렵고, 그리 밝지 않은 소식들이 언론과 방송에서 주로 전해지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더욱 더 건축에 열정을 가지고 자기 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
올해는 출품작이 너무 많아서 1차 심사 때부터 수상작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거의 10대 1이 넘는 경쟁 속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1차 심사에 통과하는 작품이 변경이 될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선정하였지만, 우수한 작품이 아깝게 선정되지 못한 예도 많았다.
2차 심사에서는 매우 출중한 수작들이 많아서 더욱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심사위원들은 기본원칙에 충실하고, 협회에서 제시한 작품의 주제를 잘 해석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경기설계에서 수상권에 진입한 작품들은 주제에 충실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심사에서 또한 중점적으로 심사한 사항은 작품 속에 숨어있는 번뜩이는 건축적인 상상력이다. 평소 주의 깊게 보아왔던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예리한 분석력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진부한 해결책이 아닌 남들의 생각과 상상력을 뛰어넘는 치열한 사고의 결과가 높이 평가되었다.
앞으로의 세계는 하드웨어의 세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세계로 급격하게 재편될 것이다. 전자회사가 아닌 소프트웨어회사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인 건축설계가 하드웨어인 건설에 우위를 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때 스티브잡스와 같은 새로운 상상력으로 무장한 우리 젊은 예비 건축사들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이 사회적 조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개척해가는 수상자들과 비록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열정을 가진 모든 참가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다!

박 순 란 / fory ou 건축사사무소

우리의 건축 미래를 책임질 전국학생들의 작품을 감상(?) 하면서 우리 건축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다양하고 독특한 색깔과 성향이 돋보이는 작품도 다수 보였고 전문가다운 노련함이 내재된 작품도 간혹 눈에 들어온 반면 아직은 서툴고 표현기술이 부족하여 작품에 그만의 생각을 전달하지 못한 아쉬운 작품도 있어서 못내 안타까웠지만 우리의 건축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 이었다고 나름 정리해 보았다.

몇 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작품에 나타내고자 했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500점이 훌쩍 넘는 작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그 주제에 녹아들어 학생과 함께 호흡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행여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과 함께 안타까움이 앞선다.

심사의 기준은, 제시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작품에 표현 하였는지….

작품표현의 노련함 보다는 의도하고자 하는 생각과 독특하고 창의적이며 현실에 접목이 가능한 작품에 많은 점수를 주고자 하였고 건축인 으로써 건축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작품에 임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보았다.

제출된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진보 되었고 전문가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몇 작품도 눈에 띈 반면 다소 격차가 느껴지는 작품 역시 상당수 보였으나 지금은 미흡했지만 발전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각 대학교의 열정과 배려 기존 건축사들의 사회적기반과 지지 등이 이들의 미래와 건축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나를 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심사평을 마치고자 한다.

정 재 욱 / 단국대학교 교수

고도로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 개발에 의한 인간의 물리적 욕구가 충족되어 간다고 믿고 있지만 그 배면에는 항상 또 다른 경계가 생성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찬미하는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는 자의든 타의든 인간적 소통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쉽고 편리하게 소통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이중성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는 사회계층이나 같은 목적의 이해집단 속 사람들도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공간의 경계에서 분주히 방황하는 현실이 오늘날 디지털 사회의 실상이다. 건축의 기능만이 인간의 목적이 아닌 만큼 첨단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또 다른 인간(인간성)의 모습을 건축과 도시에 담아야 한다. 'Social-Interface – 사회적 결합' 단절과 연결, 그 경계를 초월하다 라는 이번 주제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건축, 도시적 제안을 요구하였다. 제출된 작품들에서 매우 다양한 문제의식과 테마를 가지고 고민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속에는 매우 직설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계획안부터 도시의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는 계획안까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주제를 해석하였다. 어떠한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느냐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주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많은 작품들은 건축 프로그램(용도)을 단순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쉬웠으며 이것은 주제를 너무 표면적으로만 인식한 오류가 아닌가 싶다. 건축의 문제를 건축의 언어로 시작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 인문학적 관점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건축의 언어를 재발견하려는 노력과 실험이 요구되는 주제라고 해석하였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번에 뽑힌 입상작 중에서도 대상 '아날로그 칩(Analog Chip)'은 Interface의 인자를 '아날로그 칩(Analog Chip)'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도시 지하철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삽입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날로그의 인간적 감성이 빠르게 움직이는 디지털 사회에서 접촉을 유발하고 도시의 인자를 새롭게 잉태한다는 해석은 매우 창의성이 돋보이는 계획안이었으며 분석의 과정과 결과의 내용이 충실한 실험적인 건축 설계안으로 사료된다. 대상 이외에도 우수상과 특선으로 뽑힌 입상작들 모두 주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나름의 분석과 실험을 통하여 건축의 창의적 방법을 제시한 우수한 작품들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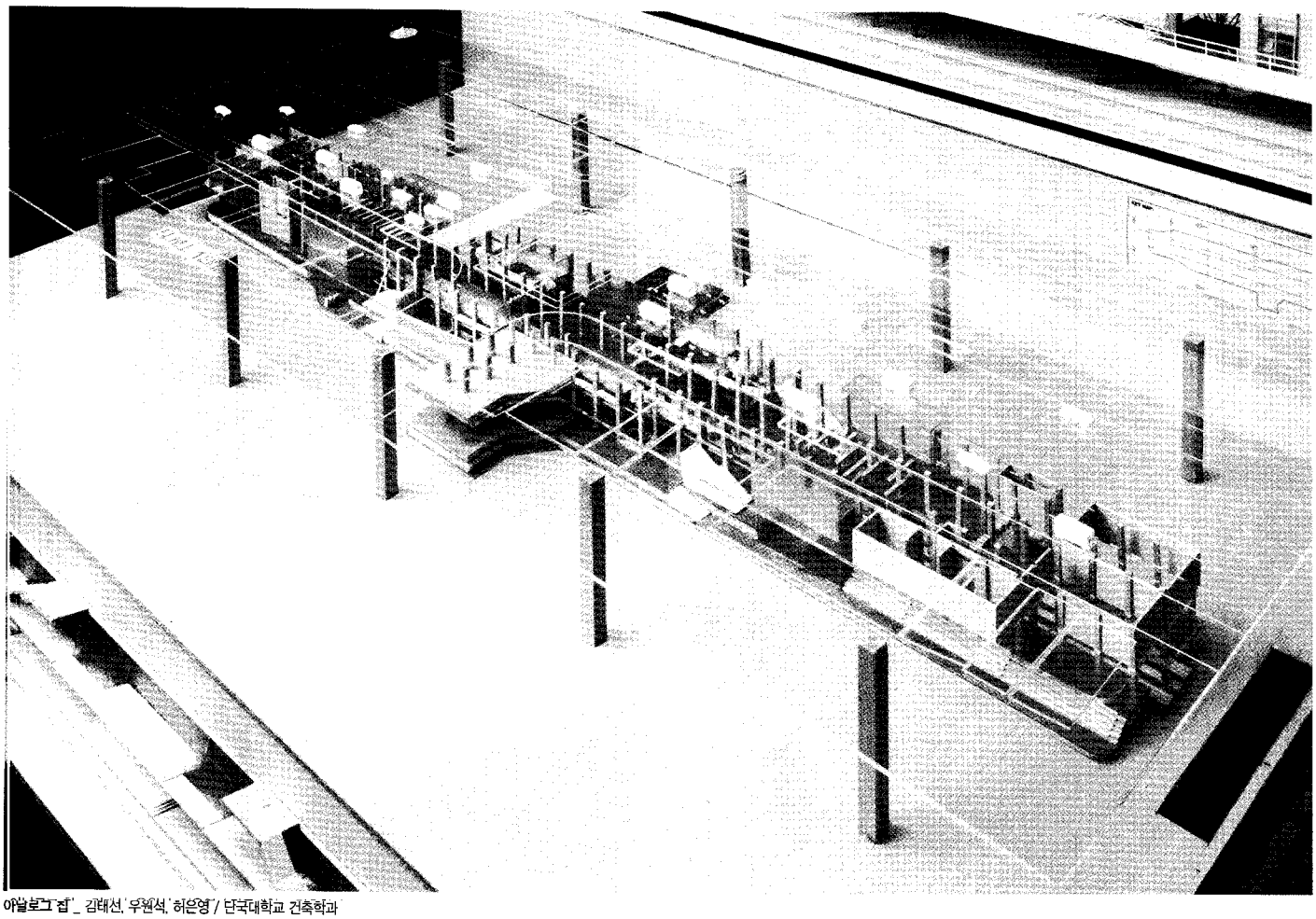
조 정 철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현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에 힘들어 하는가?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변화의 사이클이 어지럽게 빨라진 우리 사회의 세상읽기도 무척 복잡해졌습니다. 자기시대 읽기는 시세에 대한 야합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대정신이라 보여 집니다. 이러한 정확한 인식의 토대 없이는 그 어떠한 사유도, 건축적 대안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계획건축물 부문의 주제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은 그 시작과 함께 기술, 기능 ,예술, 공간, 사회, 문화, 도시, 역사 등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각 분야의 변화속도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빨라져, 그 변화를 담고 결합해야 할 건축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한참을 뒤져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의 문제로 세대, 계층, 지역, 인종, 정보, 민족, 종교, 이념, 문화 등 각 분야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게로 따뜻한 시선을 돌려 결합과 통합을 통해 공생할 수 있는 건축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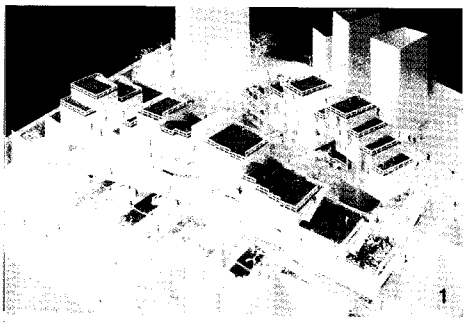
이번 공모주제가 지닌 매력 때문인지 평소보다 많은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참신한 문제제기와 완성도 있는 대안을 제시한 응모자 및 수상자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건축의 의미를 탐구하는 이번 공모전의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결합(Transcendence between convene and intervene /단절과 연결, 그 경계를 초월하다)의 주제가 그동안 미뤄 두었던 단절의 문제를 다시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한편으론 지금 건축계는 대,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에 당면해있습니다. 젊음의 한 시기를 건축의 의미를 탐구하며 열정적으로 미래를 꿈꾸는 많은 건축학도들이 졸업과 함께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약자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전에서 보여준 참가자들의 열정과 잠재력으로 보아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우리 한국 건축문화가 세계로 발돋움 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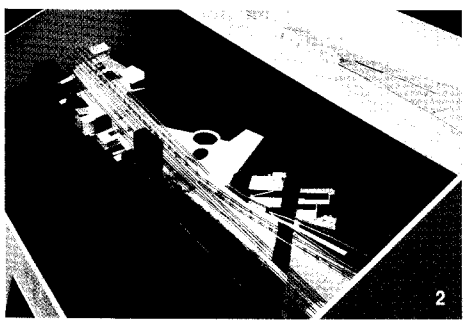
大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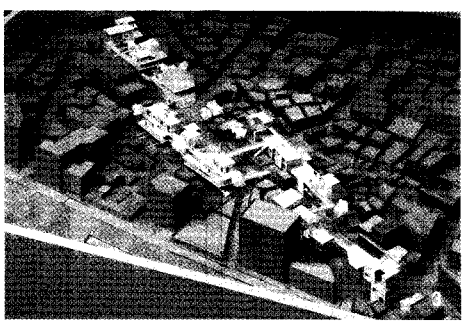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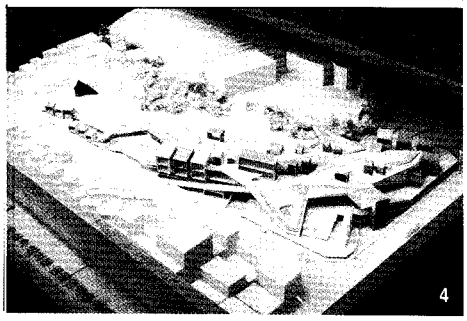
야날로그 '접' _ 김태선, 우원석, 허은영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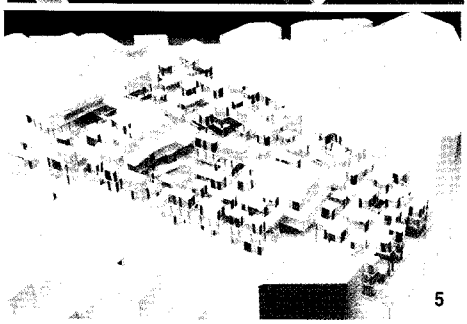
優秀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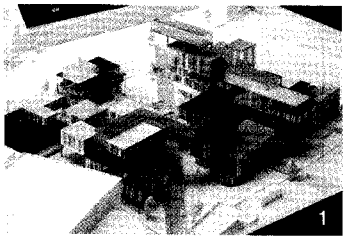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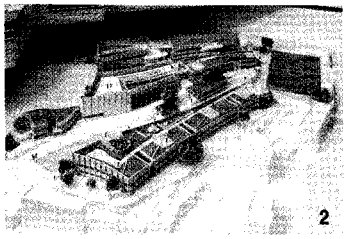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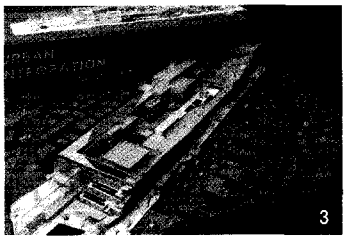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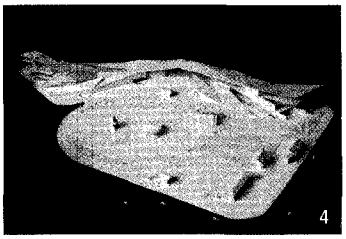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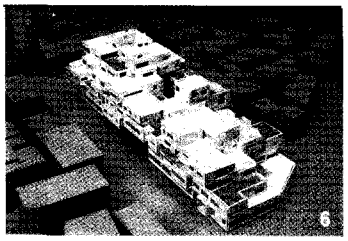




1. 도시에 살 자격을 얻는다는 것 _ 박시몬, 김성수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 노마디즘과 도시의 재생 _ 김가영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3. 걸으며 만나는 삶의 이야기 _ 김현주 / 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전공
4. 단지 비워져 있는 것은 열린 것이 아니다_ 김진표, 이용훈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 유동적 커뮤니티, 재래시장의 가치를 잇다 _ 주연홍, 김두리, 강준성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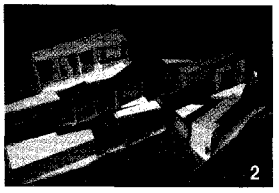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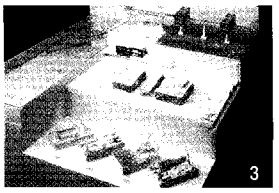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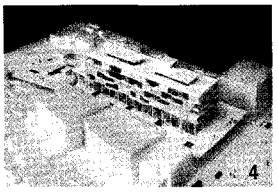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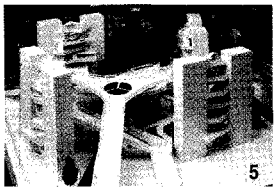
特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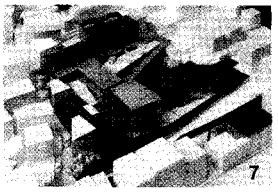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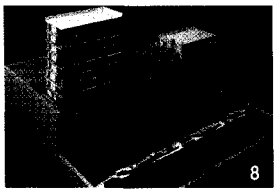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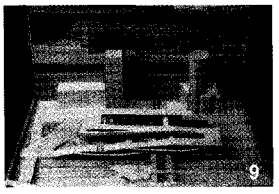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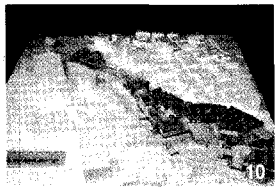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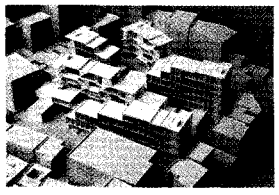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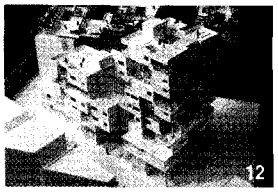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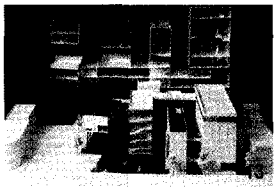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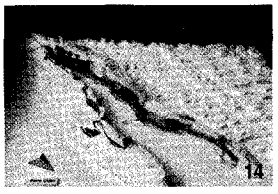







1. **너에게 접속하다** _ 김영인, 방성윤, 이민기 /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2. **그 싸앗들은 며칠 있으면 발아할 것이다** _ 이종상, 현지연, 윤소라 /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3.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사회적 소통의 제안** _ 서규석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4. **도시 내 소외된 공간의 환원** _ 안재현, 한준희, 최홍석 /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5. **은둔자를 위한 도시 회로** _ 임현택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6. **벌집사이-노동자주거, 사이공간을 통한 커뮤니티제안** _ 이다영, 이슬기, 김현진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入選

01. **대학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도심 순환체 가로공간 계획** _ 고우현, 박은지, 신동우 /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02.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농업** _ 허지훈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03. **도시와 땅의 경계에서…** _ 허성훈, 김재영, 이지현 /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04. **유토피아의 반(反)이상향** _ 서두원 /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05. **사회적시간의 공존**_ 이숙민, 신영빈, 송 일 / 서울예술대학 실내디자인과
06. **노유자와의 교감을 커뮤니티로 답하다** _ 최병원, 김여진, 김기웅 / 울산대학교 건축학 전공
07. **사회적 클러스터-통합을 위한 플랫폼** _ 김성희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08. **회색빛 위에 색깔을 입히자** _ 신수정 /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09. **새로운 환승개념을 이용한 소통의 신도림역사** _ 김찬우, 강호영, 최용기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10. **서촌 갤러리마을 안내** _ 김 민, 손상은 /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11. **돈의동, 도태된 도심 속 자기 역할 찾기** _ 최은영 /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12. **도시 안에서 삶을 찾다** _ 정상우, 배혜림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13. **기억의 공유를 통한 치유** _ 김민혜, 김용균, 이윤희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14. **빛과 공간의 풍경** _ 김용섭, 홍기준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15. **경계 위의 유희** _ 윤진용, 남윤정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16. **공생을 위한 유전구조** _ 김응철, 강봉성, 최종욱 /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7. **사이공간으로서 부산역 철도부지의 복합연계 재개발계획안** _ 이희련, 정희경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18. **잠재적 경계공간을 통한 소생** _ 김남현, 이진호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19. **커뮤니티 코어** _ 이재형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20. **종로 가로구조 변화 분석을 통한 역사박물관 계획** _ 곽성주 /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21. **더 이상 이방인이 없는 이태원** _ 유 청 / 아주대학교 건축학부